

6. 한국전쟁과 남북관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은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피해는 물론이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현재까지도 남과 북의 분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한국인들이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번 차시에서는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학습목표

1. 한국전쟁의 시작에서부터 휴전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정전 협정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산가족들의 상봉 장면을 보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 한다. 함께 살아야 할 가족들이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 가족이 만날 수 없는지 말해 보시오.



1983년 KBS에서 방영되었던 이산가족 찾기 방송 프로그램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면

기본교재 확인하기

영역 / 과	제목	관련 내용
정치 / 24과	한국의 국제관계	분단,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 통일

Section 01

한국전쟁과 정전 협정



▶ 북한군의 남침과 피난민 행렬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후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은 철수했지만 남북의 경계였던 38도선을 둘러싸고 군사적인 충돌이 늘어났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공하였다(한국 전쟁). 하지만 병력과 장비가 부족했던 남한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아래로 후퇴하였다.

UN은 북한의 남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6개국으로 구성된 UN군을

파견하였고,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켰다. 한국군과 UN군은 3개월 만에 서울을 되찾고 평양을 넘어 압록강 유역까지 올라갔다.



▶ 중국군의 인해전술

▶ 1.4 후퇴

▶ 인천상륙작전
하지만 중국군이 북한군을 지원하면서 한국군과 UN군은 후퇴하였고(1.4후퇴, 1951년), 이후 남과 북은 38도선을 두고 대치하였다.

전쟁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측은 휴전 협상에 들어갔고, 결국 UN군과 북한, 중국 대표가 정전 협정(1953년 7월 27일)에 서명하면서 전쟁이 멈추었다.



▶ 정전 협정 체결

▶ 철수

있던 곳에서 물러남

▶ 한국 전쟁의 인명 피해

구분	피해 인원 (명)
한국군	137,889
한국 민간인	244,663
북한군	508,797
북한 민간인	약 1,500,000
유엔군	40,670
중국군	116,000

(출처: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사업회)

▶ 정전

전쟁을 멈추는 것

대한민국 돋보기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들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당시 16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타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에서 전투 병력을 지원했으며, 그 외 5개국(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의료 부문을 지원하였다. 지금도 한국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도움을 준 이들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한국 전쟁 때 한국을 도와 준 나라들